東大時報
發行兼編輯人　白性郁
印刷人　金鎭福
編輯局長
發行所
서울市中區寧洞3街26
東國大學校內
東大時報社
電話②1685·1686
(週刊)
(第七十四號)
檀紀4289年11月5日發行
(第十五部)

欲意非聖
不能制中
一毀一譽
但爲利名
(法句經)

「學生의날」記念行事 多彩

3日、11時 第1講堂에서

十一月三日 第二十六回 光州學生運動 記念하는 第四回 「學生의 날」을 맞이한 本校에서는 多彩로운 行事가 있었다 即 이날 午前十一時부터 約一時間 第一講堂에서 同記念式이 擧行되었는데 同式에는 總長 副總長을 비롯하여 敎職員多數및 學生數百名이 參席하였다 「學生의날」記念式이 끝난直後 또하나의行事가 進行되었는데 바로 以北同胞義擧促進蹶起大會이었는 것이다 이兩行事에서는 要旨다음과같은 總長訓辭및 總長記念辭가各各있은後 十二時三十分 閉會되었다

總長 訓辭 (要旨)

다음義었게 記念코저 以北同胞義擧促進蹶起大會를 열게된것이다 外信들이 頻繁히 報道하고있는것을 잘아는바와같이 現在 歐羅巴에서 共產黨 綜合 보드라도 잘아는바와같이 現在 歐羅巴에서 共產黨 綜合 보드라도 잘아 黨政治의 暴政에 蜂起한 항가리아 自由國民들도는 「포—란드」國民들 自由國民들도는 「포—란드」國民들 에게 敬意를 表하려는것이다 우리나라는 八·一五解放後 自由民主主義國家가 되었지만 以北同胞 主主義國家가 되었지만 以北同胞 는 史上 드물게보는 共產黨獨裁에 呻吟하고있는데 우리는 하루바삐 그들을 救出해야될것이니 오늘以 後 그들을 契機로이에積極擁護 하루바삐 그들을 救出해야될것이니 오늘以 後 그들을 契機로이에積極擁護 自由國民들도는 「포—란드」國民들 에게 敬意를 表하려는것이다 우리나라는 八·一五解放後 自由民主主義國家가 되었지만 以北同胞 는 史上 드물게보는 共產黨獨裁에 呻吟하고있는데 우리는

五〇

治天下 五十年에 不知 朔風은 나무끝에 불고
明月은 눈속에차다 萬
왜라 天下事를 億兆蒼 里 邊城에 一長劍 짚
生이 戴己를 願하나니 고서서 긴파람 큰한소
庚衢에 閑童謠하니 太 래에 거칠것이없어라
平인가하노라 (金宗瑞)

(卞季良或云成守琛)

五十餘年已坐朝
不知治亂聖君堯
憶兆蒼生願戴否
庚衢烟月閑童謠

五一

내 좋다고 남삼은일
하지말고 남이 한다고
義삼여든 좇지마라 우
리는 天性을지켜 삼긴
대로하리라 (李 開)

勿求己利妨他情
長臣莫隨人不義行
吾輩常存天賦性
一生心事自公平

五二

萬里邊城提劍立
一聲長嘯壯心寬
長白山에 旗를꽂고 豆
滿江에 말싯기니 색은
저선듸야 우리아니 사
나희냐 어찌타 凌烟閣
上에 뉘얼굴을 그릴고

(金宗瑞)

將旗高揮白頭山
豆滿江流洗馬還
若道吾人非傑士
凌烟閣上畫誰顏

五四

朔風怒號在林端
明月玲瓏雪裡寒
首陽山 바라보며 夷齊
를 恨하노라 주려 죽
을망정 採薇도 하을것
가 아모리 푸새엇지인
들 뉘마헤나거니
(成三問)

擡頭瞻望首陽山
却憶夷齊恨萬端
寧死何心薇採採
那曾寸草淵明裁

五五

淳山에 눈이마자 최
明月은 눈속에차다 夜光
明月이야 밤인들 어두우
랴 一片丹心이
變할줄이있랴 (朴彭年)

五六

白雪이 滿山하고 梅花
는 만개하고 白雪
이 만산하고 梅花
만 홀로 피여 香
기 진동